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 금욕성, 자연성, 신비성, 세속성을 중심으로 —

김 태 연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s of Medieval Look
— Focus on Asceticism, Naturalism, Mysticism and Secularism —

Tae Yeon Kim · Min 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8. 2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medieval look in fashion by investigating its aesthetic values. Accordingly, it w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dieval culture with its composite aspects.

Modernism sought to make the Middle Ages in its own image. 'New Medievalism' has on the whole tried to avoid reading the Middle Ages onto the modern world. Instead it designates a predisposition about the discipline of medieval studies broadly conceived. Consequently, it has changed the viewpoint of medieval culture from the one-sided angle into the diversified one.

As recent studies based on New Medievalism have argued, a close look at the medieval culture revealed the dualistic nature of it, with contradictory aspects such as piety and secularity, ideality and formality coexi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eval culture are categorized to asceticism, naturalism, mysticism and secularism.

Asceticism,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elancholic and heavy atmosphere of the medieval culture, is related to christianity and despair of life. It is expressed in medieval dress in forms of body-concealing semi-fitted silhouette, coarse texture and dark color. As a reaction to the extreme splendor and exposure of recent fashion, the ascetic medieval look is attracting attention. The monastic look is characterized by body-concealing silhouettes and minimized usage of colors and details.

Naturalism is the feature seeking for purity of the nature and the human itself. It appears in terms of line as a smooth curve flowing along the body contours, or as a revival style of the Greco-Roman drapery in the medieval dress. Naturalism in the medieval look of the late 20th century fashion is expressed as a pure image with the use of sheer and soft fabric to form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 smooth curve flowing along the body contours.

Mysticism symbolizes the authority of the Christ and the glory of heaven. It is presented in the medieval dress of the body-concealing straight silhouette made of gorgeous fabrics, brilliant colors and decorations by gems and gold. The insecurity caused by the fin-de-siecle mood is creating a strong interest in religion and it is reflected in fashion as a medieval look reviving the solemn and magnificent style of the medieval dress.

Secularism is a reflection of the medieval mind of indulging in the beauty of the mundane world. Heraldry and excessive decorations of the medieval dress are forms of this secularism. These styles of gorgeousness are being refined into a new medieval look of the 1990's.

The medieval look of the modern fashion is featured in various styles, reflecting the pluralism of the postmodern society.

I.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의 사회에는 새로이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세기말적 현상으로서의 불안감이 공존한다. 과학에 대한 회의, 자연환경의 황폐화와 그에 따른 지구 종말론의 등장, 인간성의 상실과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종교와 자연으로 쏠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문화 전반에 걸쳐 중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중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문학을 비롯하여 대중문화의 여러 장르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중세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흥미로운 실례들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중세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수많은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¹⁾.

패션계에서도 중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려는 노력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중세풍이 중요한 패션 테마로 대두된 것이다. 1993년 8월 Vogue지²⁾에서는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이를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였고, 이런 경향은 곧 패션계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뿐만 아니라 Promo Styl, Nelly Rodi 등 세계 유수의 정보지들은 '98/9 가을·겨울패션 트렌드로 "중세풍"을 중요한 테마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중세풍 복식을 분석·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세풍 복식에 대한 연구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원성의 일면을 고찰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중세문화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세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중세에 대한 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등장한 신중세론의 발생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3. 신중세론은 중세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연구문제 2.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는 무엇인가?

1. 중세복식양식의 미적가치는 어떤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는가?

2. 20세기말 패션에서의 중세풍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II. 중세문화에 대한 고찰

1. 중세론의 역사적 흐름

신중세론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르네상스 이후 모더니즘 시대에 이루어진 중세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겠다.

Eco³⁾는 그의 저서에서 중세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1) Eco, U., 조형준 역(1994), 글쓰기의 유희, 새물결, pp. 51-54

2) Vogue, 1993년 8월호, pp. 134-136

3) Eco, U. (1994), op. cit., pp. 56-57.

부터 유럽에는 중세에 대한 향수가 만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는 중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르네상스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기간을 고전 고대와 그 부활인 르네상스와의 사이의 공백기로 보고, 논의해볼 가치조차 없는 시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중세에 대해 문화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였다. 낭만주의 시대와 중세와의 관련성은 '낭만주의'의 어원에서도 볼 수 있다. 낭만주의(Romanticism)란 단어는 로망스 언어로 쓰인 '로망스(Romance)'라고 불리는 중세의 모험담에 대한 관심에서 유래한다⁴⁾. 한편 독일 시인 Heine는 낭만주의를 "중세의 삶과 사상을 다시 일깨운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⁵⁾. 이처럼 낭만주의는 그 출발에서부터 중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다.

이 시대에 이루어진 중세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중세와 기사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18세기말 낭만주의가 막 생겨나던 초기에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한 것은 기사도였고, 갓 피어난 낭만주의는 그것을 중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⁶⁾. 두번째는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종교적 이상향으로서 중세를 회귀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세의 경건, 순수, 신비주의적인 열정이 찬양되었다⁷⁾. 건축가요 저술가였던 Pugin, Ruskin을 비롯한 몇몇 이론가들은 윤리적내지는 종교적 이유에서 고딕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반 수도사적인 규율을 지키며 기독교 예술을 중세의 순수함으로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를 특징지었던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회의와 불안은 중세 장인정신에 대한 회고를 탄생시켰다. Morris는 예술을 고딕 수공예의 관점으로 '인간의 노동에 의한 희열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⁸⁾. 그 결과 중세예술에 대한 관심이 예술

사, 비평, 창조적인 예술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며, 미술가들에 의한 다양한 중세원천의 재발견은 20세기의 표현주의의 일맥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고전주의자들이 중세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던 시각을 비판하고자 했던 낭만주의자들 역시 비판에만 급급한 나머지, 역시 중세의 여러 특징 중에서 찬양하고자 했던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전철을 되밟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현대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모더니즘 시대의 중세론은 일원론적인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세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신중세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우리는 비극론, 미의 이상 그리고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의 사용방법은 중세에서 배웠다⁹⁾. 즉 중세는 근대 문명의 용광로인 셈이다. 따라서 서구 문명의 기원을 자문할 때마다 중세로 되돌아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최근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경향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중세의 문화와 갖는 많은 공통성 때문에 중세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co¹⁰⁾가 지적했듯이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중심의 부재' 또는 '권력의 편재론'과 '다원적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은 중세시대를 인간의 자각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잠정상태로 비하하였다¹¹⁾.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는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이 시기를 재구성한 이미지에 불과하다¹²⁾. Toulmin¹³⁾이 그의

4) Klassen, W. (1990), 서양건축사, 대우출판사, p. 191.

5) "Bernbaum, E., Guide to the Romantic Movement"를 "Furst, L.R., Romanticism", 이상욱 역(1983), 낭만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재인용, p. 4.

6) Huizinga, J. (1988), 중세의 가을, 문학과 지성사, p. 68.
7) Cooper, R.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Raphaelite brotherhood and painters before Raphael in English criticism of the late 1840s and 1850s, Victorian Studies 24(4), p. 407.

8) 권명광·명승수(1983), 근대디자인사—산업혁명에서 바우하우스까지, 미진사, p. 15.

9) Eco, U. (1994), op. cit., pp. 55-64.

10) Ibid, p. 295.

11) Blumenberg, H. (1983),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MIT Press, p. 77.

12) Nichols, S.G. (1991), The New Medievalism: Tradition and Discontinuity in Medieval Cultu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p. 2.

13) Toulmin, S. (1990), Cosmopolis: The Hidden Agenda of Modernity, Macmillan The Free Press, p. 3.

최근 저서에서 주장하듯이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제 그 발전단계에서 중반부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모더니즘도 지나간 과거로서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중세 연구 분야에서도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본 중세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의 일면으로 등장한 신중세론(New Medievalism)은 중세 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세 연구들의 기본가정과 전제조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던 것들을 재고해 봄으로써 이들을 재공식화하기 위한 경향을 말한다¹⁴⁾. 이는 중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전주의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와의 차이점과 연속성을 고찰해봄으로써 중세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이해된다.

신중세론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루어진 중세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이는 왜곡된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 중세문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술을 시도한다.

한편 신중세론은 근대의 중세연구 방법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중세문화 연구는 중세 문화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봄으로써 획일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엘리트 문화와 민중문화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중세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중세론자들은 무엇보다도 일군의 문화비평가들이 르네상스의 정신에 따라 중세라는 개념에 덧씌워 놓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0세기 이전의 중세 초기 그리고 전환기 이후의 얼마동안까지도 새로운 지배계층의 문명과 로마의 유산, 기독교적, 동양적 색채의 온갖 요소간의 매혹적인 대화로 가득찬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활력을 띤 시대로 재평가 받고 있다.

근대인들에 의해 중세에 씌워진 또하나의 어두운 편견의 하나는 중세 시대의 문화를 전적으로 심각하고 심지어는 침울하게 묘사하는 점이다. Bakhtin은 중세문화 내의 무거운 요소는 가벼움의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중세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고 주

장한다¹⁵⁾. 사실 중세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기근과 페스트 등 중세인의 삶을 어렵게 색칠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으나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영혼의 행복한 온화함과 평온함은 존재했다. 이는 당시의 그림 속에 잘 용해돼 있으며 당시 음악의 맑은 청순함 속에 잘 응결돼 있다¹⁶⁾.

요약하면, 모더니즘 시대의 이루어진 중세에 관한 논의는 일원론적인 시각으로 중세문화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중세문화를 획일적인 문화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다원주의가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중세를 복합적인 문화로 인식하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중세를 고찰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중세를 보는 시각의 변화

모더니즘 시대의 중세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신중세론
일원론적 시각 ↓ 획일적인 문화	다원론적 시각 ↓ 복합적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만인의 침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압축기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적인 정체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전적 바탕 위에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활력있는 문화 •무거운 요소와 가벼움의 요소가 상호작용한 역동적 문화

3. 신중세론의 관점으로 본 중세문화의 특성

신중세론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중세 문화 속에 내재하는 여러 이원적 성격들을 발견하였다. 중세 사회에는 그리스교도적 정신주의와 현세긍정적 감각주의가 공존하였으며, 중세인들의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던 종교는 끊임없는 금욕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양식과 결합하여 더할 나위없는 화려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지상의 쾌락에 대한 절대적 경멸로써 현세적인 삶을 완전히 거부하든지 아니면 영혼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현세의 쾌락과 이를

15) Gurevich, A. (1988), *Medieval Popular Culture: Problems of Belief and Perce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6-177

16) Huizinga, J. (1988), op. cit., pp. 34.

14) Nichols, S.G. (1991), op. cit., pp. 1-2.

다음에 대한 탐닉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였다¹⁷⁾.

이와 같은 이원적 특성들로 인해 중세문화는 모순에 가득찬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흐름들은 차라리 서로 포개져있는, 서로 모순되면서도 공존하는 문명의 두 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세 문명이라는 이 복잡한 문명은 때로는 서로 대립되고 때로는 서로 혼돈되기도 하는 여러 개념들과 형식들을 한 무더기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문화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4개의 미적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중세문화의 미적가치

중세의 시대정신	경건주의 영역	감각주의 영역
정신주의 형식주의	금욕성 신비성	자연성 세속성

1) 금욕성

중세 전시대에 걸쳐 사회와 문화에 가장 깊이 관여한 기독교 교회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죽음에 대한 항구적인 생각을 새겨 놓았으며¹⁹⁾, 그것은 중세인들에게 생활에서는 삶에 대한 공포,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한 거부인 금욕주의의 실천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실제 삶에서의 순수하고 고결한 금욕주의의 표현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심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한 두려움을 본다. 인간세계의 비참상이 야기한 깊은 절망이다. Huizinga²⁰⁾는 종교적 사고는 기껏해야 그러한 절망의 기조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기독교적 신앙에서 요구되어진 것이든, 삶에 대한 절망에서 자연발생한 것이든지 간에 금욕성은 중세인들의 삶에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에게 중세에서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주된 특성인 것이다.

2) 자연성

중세는 현대인들에게 물질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신봉된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거론할

때 대두되는 특성이 중세의 자연성이다.

자연성 내지는 순수성은 중세문화에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특성이다. 종교적인 문화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중세문화에는 자연주의적인 특성이 공존하였다. 중세문화에 나타나는 자연성은 긍정적인 풍속들의 정교한 장식물들이나 민중들의 예술인 민요와 음악, 풍경화의 풍요로운 정경에 나타나 있다.

또한 중세문화의 자연성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철학적 사상이 중세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대의 문화현상은 언제나 당대의 현실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앞서간 시대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을 맺기 때문에 정신사적인 단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중세문화의 내면에는 과거 고전주의 사상이 바탕에 흐르고 있다.

3) 신비성

중세 초기의 종교는 현실생활의 수도를 의미하는 정숙 및 금욕을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문화가 번성할수록 그리스도의 권능 및 천국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한 장엄하고 화려한 양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종교적 감동은 풍부하고 채색된 표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중세의 신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양식은 모자이크이다. 아름다움을 빛에 동일시하는 이 같은 경향은 자발적인 표현들 속에 그 시대의 미학적 의미를 살펴볼 때도, 중세의 인간이 미적 쾌락의 표현을 시도할 때마다 거의 매번, 그의 감동이 빛나는 광채나 격렬한 움직임의 느낌으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중세 종교예술이 화려한 양식의 신비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대의 종교예술이 승려계급의 예술임과 동시에 귀족계급의 예술이기 때문이었다.

신비주의는 중세 시대에 그 자체로는 비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고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예술에 모든 종교적 개념들의 풍성함을 열어주었고, 예술로 하여금 영혼의 가장 깊은 체제와 열망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다.

4) 세속성

교회의 끊임없는 금욕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세사회는 행동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나 외관을 중시하는 사회였다²¹⁾. 신분, 서품, 직업은 각각 의복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중세인들에

17) Ibid., p. 49.

18) Gurevich, A. (1988), op. cit., p. 182.

19) Huizinga, J. (1988), op. cit., p. 166

20) Ibid., pp. 44-46.

21) LeGoff, J. (1992), 서양중세문명, 문학과 지성사, p. 423.

게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기독교적 이상은 육체를 멸시했지만, 전사적 이상은 육체를 고양시켰다²²⁾.

중세문화의 세속화 현상은 이 시대 말기에 등장한 시민계급의 취미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되었다²³⁾. 중세 말기로 갈수록 예술은 기상천외한 화려함으로 점차 바뀌었다. 예술적인 관심의 중심이 위대한 상징이나 형이상학적인 종합이라는 데서 떠나 직접 체험 가능한 것, 감각적이고 일회적인 것의 묘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예술 형식에서는 기괴한 허식의 애호로 나타났다²⁴⁾.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탐미주의가 만연하였다. 이 시대의 복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곳곳에 새겨진 문장(紋章)은 중세시대 사람들에게는 가문에 대한 긍지 이상의 것으로 가문의 형상은 중세의 정신 속에서는 토tem 사상에 가까운 의미를 지녔다. 가끔은 형식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어 내용의 중요성이 망각되는 일도 많았다.

이 같은 문화의 세속성 내지는 형식주의는 세계에 대해 절망하면서도 또 세계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II. 중세품 복식양식

1. 중세복식의 미적가치

1) 금욕성

대부분의 복식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5~11세기의 전 유럽에서는 전형적인 기독교 금욕주의가 지속적으로 남녀 모두의 옷 입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²⁵⁾. 인체에 대한 굴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이 시대의 인체미는 극도로 관념화된 마른형을 이상적으로 여겼으며, 육체미의 형상을 철저히 근절시켰다. 복식의 전체적인 외형은 기독교적인 정수의 의미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이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드레이퍼리 의복은 옷안에서의 인체의 우아한 육체적 움직임에 주위를 더욱 집중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복

은 너무 헐렁하지 않게 어느 정도 몸에 밀착되는 형태(semi-fitted)로 발전하였다. 기본선은 로마의 선을 따랐으나 인체가 더욱 은폐되는 평면적인 형태를 지향하여 의복 아래에 있는 인체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²⁶⁾.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느슨한 튜닝형의 기본적인 옷을 입었다. 복식에 성적인 의미란 없었으며, 그 결과 중성적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²⁷⁾. 장신구, 문양 등에 의해서만 성차를 만들고 있다.

중세 초기의 이같은 스타일은 수도사들의 복식으로 정착하여 이후 복식이 다양한 형태로의 증식을 보일 때까지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림 1] Hooded tunic (11C)

한편 수도사들의 의복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 비해 보수성이 더 강한 일반 서민층의 복식에서도 중세시대 전반에 걸쳐 금욕적인 성격이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AD 1000년의 첫번째 천기말이 가까워지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밀착되는 의상에 대한 반발로 잠시 무겁고 헐렁하게 인체를 감추는 듯한 의상이 등장하였다²⁸⁾. 또 13세

22) Ibid., p. 423.

23) Houser, A. (1976), 백낙청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 중세편, 창작과비평사, p. 223.

24) Huizinga, J., op. cit., p. 219.

25) Wilson, E. (1985), Adorned in Dreams, Vigaro Press, p. 18.

26) Russell, D.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p. 92.

27) 이민선(1993),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28) Ribeiro, A. (1986), Dress and Morality, B.T. Batstord p. 42.

기에 육사병과 천재지변을 치른 이후 금욕적인 형태가 다시 한번 복식의 전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2) 자연성

중세 초기에는 교회에 의한 강제와 권위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고 인간본연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에서도 자연과 인간 본연에 충실하며 그들의 자연스런 미를 표현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였고, 이들 미술가들은 섬세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자 홀리내리는 의상의 부드러운 곡선과 가느다란 몸매의 우아함을 즐겨 묘사하였다.

중세복식에서 자연성은 인체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연적 체형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은 신체 그 자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살릴 수 있는 몸에 밀착하는 스타일과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의 드레이퍼리를 부활시킨 넉넉한 주름과 볼륨감 속에 간접적으로 인체 윤곽을 표현하는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2] Medieval peasant's costume

달마티카(dalmatica)는 초기에는 T자형의 튜닉 스타일이 기본이던 것이 점차 옷맵시를 아름답게 보이게 위하여 소매부리를 넓히고 진동과 가슴둘레를 좁혀서 상체가 몸에 맞게 하였다²⁹⁾. 블리오(bliaud)도 초기엔

달마티카처럼 전체적으로 헐렁하게 맞고 소매통이 넓었는데, 12세기부터는 상체가 몸의 선이 나타날 정도로 끼고 하체는 통이 넓어지게 되었다.

중세복식에 표현된 자연성은 그리스·로마시대의 대표적인 복식 형태인 드레이퍼리형의 재창조 경향으로 나타난다. 드레이퍼리가 정제되면서 의복 아래 있는 인체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있었다. 유연한 주름선에 의해 인체의 볼륨이 감지되는 이른바 소극적인 의미의 노출이 이루어진다³⁰⁾. 비록 예술이나 의학에서 인체 해부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이 시기의 예술에서 보이는 구조의 단순성, 단아한 정신성이 의복에서는 비례, 우미한 드레이핑, 단순함으로 나타났다. 패턴이나 장식 디테일보다는 의복의 선이 더 중요시되었다³¹⁾.

중세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복식에서의 단순성, 조화 그리고 균형이 강조는 1200~1250년에 그 절정에 이르는데, 이 시기를 고전적 고딕(Classic Gothic)이라 일컫기도 한다³²⁾.

3) 신비성

고위 성직자나 귀족계급 등 중세시대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복식에는 신비스런 분위기의 장엄함과 화려함이 있다. 종교적 경건성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은폐하는 헐렁한 실루엣의 직선적인 튜닉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중세복식에서 나타나는 신비성은 특히 다채로운 색상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외형의 비례나 조화보다는 색채의 효과를 이용해서 내적인 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³³⁾. 금색, 보라색을 비롯한 짙은색, 비비드하지 않은 색이 주로 애용되었는데³⁴⁾, 특히 금색의 사용은 신비적 특성에 상승효과를 주며, 반사되는 빛의 효과에 의해 화려하면서도 성스러운 특성을 더욱 강조시킨다. 스테인드글라스의 찬란하고 화려한 색채계가 색채에 빛을 개입시킴으로 초월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신성과 정신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에서도 화려한 색에 빛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존재

29) 정홍숙(1981), 복식문화사, 교문사, p. 87.

30) 김혜연(1989), 중세말기(14~15세기) 회화를 통한 복식 연구 - 이태리 성모상을 중심으로, 복식 13호, p. 83.

31) Russell, D.A. (1983), op. cit., p. 128.

32) Ibid., p. 130.

33) 정홍숙(1981), op. cit., p. 83.

34) Barton, L. (1963), Historic Costume for the Stage, Walter H. Baker Company, p. 103.

했다.

복식에서 디자인의 독창성보다는 화려한 직물, 사치스러운 장식 그리고 제한없는 보석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³⁵⁾. 복식에 보석과 세공한 금속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방식은 의상에 수공예술의 직접적인 요소를 가져왔다³⁶⁾.

한편 신의 영화와 권능을 현실적 감각으로 구체화된 것이 복식에 사용되어진 상징적 문양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은 화려한 색채감각과 결합하여 신의 영광, 신비로움, 천국의 영화를 표현하려 했다.



[그림 3] Charlemagne's dalmatica (9C)

4) 세속성

복식에서의 세속성은 개인의 지위와 부를 표현해주는 의복의 특징이다. 교회의 끊임없는 금욕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세인들은 의복을 통해 그들의 신분과 직업 등을 나타냈다. 옷의 사회적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컸다.

중세복식에서 세속성은 문장(紋章)의 사용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문장은 단순한 미적 문양에 지나지 않지만, 그 요소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일 상류층에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면서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게 된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의 축적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중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 계급

의식이 한층 노골화되어, 복식에 있어서도 이전의 단순하고 우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장과 허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녀의 머리모양과 모자에 있어서도 복식이 전 세기보다 정교해지고 화려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인 과장과 변화가 수반되었다.

중세말 가속화되기 시작한 복식의 세속화 경향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회의와 관계가 깊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점차 중세적 기독교의 관념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즉, 좀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기풍이 싹트게 되었는데, 이러한 심리는 우선 자신의 치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복장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유발시켰던 것이다.

문화의 다방면에서 형식주의로 표출되는 세속성은 중세말 복식에서는 기상천외한 화려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 전개될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현실생활에 대한 정열과 풍부한 감정이 넘치는 복식의 모태가 된다.



[그림 4] Exaggerated forms and decorations

중세 문화의 특징으로 범주화된 금욕성, 자연성, 신비성, 세속성은 각각 중세복식 양식에서 독특한 조형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시대에 걸쳐 각각 다른 계층의 다른 복식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한 시기 내의 다양한 복식들은 각각 다른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중세문화 속에 내포된 복합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35) Payne, B. (1988), 복식의 역사, 까치, p. 149.
 36) Huizinga, J., (1988), op. cit., p. 67.

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중세풍의 미적가치

중세풍 복식이 20세기 말에 들어와서야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세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와 더불어 르네상스 이후 현대 복식에 늘 존재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말 라파엘로 전파 화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중세풍 복식일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중세복고적 패션이 시도되지만 하나의 트렌드를 이룰만큼 집단적으로 시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세기말을 앞둔 1990년대 이후 하나의 주목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중세풍 복식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세풍 복식을 실제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보고, 다양한 이미지로 해석되고 있는 중세풍 패션의 미적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용한 자료로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Vogue지와 Elle지, Collezioni지 등이 있다. 사진의 선정 기준은 '중세풍의(medieval)' 또는 중세와 관련된 단어로 설명된 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1) 금욕성

극도로 치닫고 있는 화려함에 대한 싫증과 반발로서, 사람들은 이제 미묘한 감각과 우아함을 표현해줄 수 있는 스타일을 찾고 있다³⁷⁾.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중세복식, 특히 그 중에서도 사제복과 수녀복 등의 금욕성이 강한 종교복식으로부터 영감을 구한다.

[그림 5]는 종교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인데, 이들 모두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험렁한 의복 아래로 인체는 완전히 감춰져 있고 모든 장식도 절제되어 있다. 디테일과 장식은 최소화되고 색상도 흰색이나 검정색 등의 무채색을 비롯한 짙은 톤을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최소표현력이 정제시킨 금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이들 작품 모두 내면성으로의 복귀를 나타내는 특징을 표출하며, 단지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³⁸⁾.

Ann Demaule-meester³⁹⁾는 최근의 이와 같은 금욕주의적 패션의 등장을 '새로운 가치에의 요구'로 풀이한



[그림 5] Monastic looks

다. "사람들은 이제 성성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지속적인 상징에 싫증이 났다"고 그는 말한다. 20세기는 복식에서 노출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극에 달한 노출에 대한 반작용이 금욕성이 강한 중세풍 패션의 탄생을 가져온 것이다.

중세풍의 금욕주의 복식은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경향에 정면 대항하여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연성

환경오염 등 물질문명의 부작용에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중세는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경의 땅이다. 여기에, 90년대 들어서 길고 날씬한(slim and long) 실루엣의 유행과 함께 중세풍 복식 중 특히, 자연성이 하나의 커다란 패션 경향으로 대두하였다.

Vogue의 1993년 1월호⁴⁰⁾에서는 중세복식에 나타나는 자연성이 복고된 패션의 역사적 맥을 짚어보았다. 중세 복식의 특징 중 인체를 억압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은 라파엘로 전파화가들에 의해 19세기 말에 재현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주연⁴¹⁾은 그의 라파엘로 전파 복식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회화에 나타나는 복식을 중세풍이라 규정하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을 자연주의라 지적하였다. 한편 라파엘로 전파의 복식은 70년대에

40) Vogue, 1993년 1월호, p. 91.

41) 이주연(1992), 라파엘로 전파 회화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0-93.

37) Vogue, 1993년 8월호, p. 131.

38) Collezioni, No. 35, p. 74.

39) Ibid., p. 136.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치던 히피들의 스타일에서 리바이벌 되었다고 서술하면서, 70년대의 자연주의적 경향의 중세풍 복식은 피전트 블라우스(peasant blouse)와 샌들, 튜닉형의 커다란 플라넬 셔츠 등의 형태로 발견된다고 하였다. 70년대의 이런 자연주의적인 스타일이 90년대 들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6]은 중세의 꼬뜨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Corinne Cobson의 작품으로, 얇고 부드러운 직물을 이용하여 인체의 곡선 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을 보인다. 어떠한 인위적인 가공성도 배제된 순수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림 6] Corinne Cobson

중세풍 복식의 자연성은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시대에 인간과 자연 본연의 순수한 모습에 대해 재고하는 사회 전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세복식의 인체를 왜곡하지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도 않는 실루엣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3) 신비성

19번째의 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일종의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귀의하여 구원을 구하게 만든다. 이것은 문화전반에 유행 무형으로 표출되고 있다. 패션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상복에서의 십자가 장식물의 유행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 장식물은 사람들의 마음 내면에 존재하는 세기말적 불안감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20세기말 중세풍 복식의 신비성은 이와 같이 중세시대의 화려했던 종교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룬다.

중세풍의 신비주의를 ‘빛’을 통해 본 디자이너가 있다. 바로 Paco Rabanne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빛이 우리에게 투명함과 진리,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빛과 동일시하는 중세시대 사람들의 사고와 일치하고 있다. 그는 일관되게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내적 의미가 중세의 신에 대한 상징적인 빛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7]의 Christian Lacroix 작품은 검정색 실크 조오젯과 대조를 이루는 금빛배경의 보석들이 풍부하고 심오한 색채를 발산한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 성당의 모자이크화를 옮겨 놓은 듯 보인다.



[그림 7] Christian Lacroix

중세복식에서 신비성은 화려한 실크 직물과 여기에 금·은사로 수를 놓기도 하고 준보석을 넣고 짜기도 한 호화로운 직물로 표현되었다. 또 황금빛이 간접적으로 중세의 빛을 상징해준다고 하여 복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감각을 띠게 되었다. 현대의 여러 디자이너들은 이런 화려함을 재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풍 복식에 표현된 신비

성의 내적 의미로는 세기말적 불안감으로 인한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중세 시대 당시의 화려하고 정중했던 예술양식과 복식양식의 요소들을 차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세속성

20세기말 나타난 중세풍 복식에서의 세속성은 두가지 상반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중세에는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화려함을 현대감각에 맞추어 정제된 디자인들과 그와는 정반대로 과거 중세시대의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과도한 장식을 다시 재현한 디자인의 2부류로 나타난다.

중세풍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질이 벨벳이다⁴²⁾. 벨벳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색깔과 깊이감은 정제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중세시대 귀족들은 벨벳을 애용하였는데, 이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취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재질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8]의 벨벳 드레스는 소재 자체의 고급스러움과 깊이감이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실루엣은 중세의 꼬따르디(cotehardie)와 유사하며, 특히 짧은 소매에 리리베이프(liripeipe)를 달고 있다. 상체 전면에 수공예적 느낌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그림 8] Anne Sui

중세복식의 세속성은 기괴한 허식을 좋아하고 기상천외한 화려함으로 표현되는 형식주의였다. 90년대 들어

중세의 이런 과장과 과식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디자이너들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추'의 미적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중세풍 패션의 미적가치

형식 미적가치	내적 의미	외적 조형성
금욕성	·현대패션의 극단적인 화려함에 대한 심층과 반발 ·극에 달한 노출에 대한 반작용	·인체는폐형 실루엣,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무채색 ·중세의 종교복식으로 부터의 영감
자연성	·물질문명에 의한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시대에 인간과 자연 본연의 순수한 모습에 대한 회구	·날씬하고 긴 실루엣, 유연한 소재, 자연색 ·간접적 노출의 에로틱한 분위기, 자연스럽고 순수한 이미지
신비성	·세기말적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종교적 구원에 관심	·화려한 색채감각, 실크·벨벳 등 화려한 직물, 금·보석·진주 장식물 ·이국적이고 장식적인 분위기, 동방적 취향
세속성	·귀족적 화려함 동경 ·현대패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추'의 미적범주와 관련	·벨벳의 깊고 화려한 색깔 ·중세복식의 과도한 장식과 기교의 요소를 재현

IV. 결 론

본 연구는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와 조형성을 고찰함으로써,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중세문화를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 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세풍은 중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만큼이나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원성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중세복식의 복고적 스타일인 중세풍 복식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42) 패션투데이, 1995년 4월호, p. 43.

극으로 치닫고 있는 화려함에 대한 싫증과 반발로서, 사람들은 이제 미묘한 감각과 우아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을 찾고 있고,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세에서 영감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물질문명이 정신헌명을 압도하는 자아 상실의 시대에 대한 항거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로서, 또 순수성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된다.

중세풍 복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시대의 문화를 보는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새로운 질서로서 자리잡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시각으로 전개시킨 점이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명광·명승수, 근대디자이너 — 산업혁명에서 바우하우스까지, 미진사, 1983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경춘사, 1995
- Aers, D., Rewriting the Middle Ages: Some suggestions, *Journal of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8(2), 1988
- Artz, P.B., 홍성표 역, 중세유럽의 문화유산, 보진제, 1993
- Blumenberg, H.,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MIT Press, 1983
- Codell, J.F., Expression over beauty: Facial expression, body language and circumstantiality in the paintings of the Pre-raphaelite brotherhood, *Victorian Studies*, 29(2), 1986
- Coulton, G.G., *Life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 Dvorak, M., *The History of Art as the History of Ideas*, Routledge & Kegan Paul, 1984
- Eco, U., 조형준 역,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새물결, 1993
- Eco, U., 조형준 역, 글쓰기의 유혹, 새물결, 1994
- Fouracre, P., Cultural conformity and Social conservatism in early medieval europe, *History Workshop Journal Issue*, 33, 1992
- Freedberg, D., The problem of Classicism: Ideology and power, *Art Journal*, 47(1), 1988
- Furst, L.R., Romanticism, 이상옥 역, 낭만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Gardner L., *Art through the Ages* 7th edition, Harwart Brace Jovanovich Inc., 1976
- Gurevich, A., *Medieval Popular Culture: Problems of Belief and Perce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Avon, 1980
- Houser, A.,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고대·중세편, 창작과비평사, 1976
- Huizinga, J., *Le Declin du Moyen Age*,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 문학과지성사, 1988
- Jencks, C., What is Post-Modernism?, 청람번역팀 역, 포스트모더니즘?, 청람, 1995
- LeGoff, J., 유희수 역, 서양중세문명, 문학과지성사, 1992
- Nichols, S.G., *The New Medievalism: Tradition and Discontinuity in Medieval Cultu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 Patrick, J., Newman, Pugin, and Gothic, *Victorian Studies*, 24(2), 1981
- Ribeiro, A., *Dress and Morality*, B. T. Batsford, 1986
- Rowland-Warne, L., *Le costume et la mode*, Gallimard, 1992
- Rubin, M., *The Culture of Europe on the later Middle Ages*, *History Workshop Journal Issue*, 33, 1992
- Russell, D.A.,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1983
- Saunders, G., *The Nude — A new perspective*, The Herbert Press, 1989
- Shapiro, S.C., Sex, gender, and fashion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Britain, *Journal of Popular Culture*, 20(4), 1987
- Stock, B., Tradition and Modernity: Models from the Past, in *Listening for the Text: On the uses of the Past*, John Hopkins University, 1990
- Toulmin, S., *Cosmopolis: The Hidden Agenda of Modernity*, Macmillan The Free Press, 1990
- Venturi, L., *History of Art Criticism*, 김기주 역, 미술비평사, 문예출판사, 1989
- Zerner, H., Classicism as power, *Art Journal*, 47(1), 1988